

[주식전략팀]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삼성 Daily

- Daily 주요지표
- 주식시장 전망
- 7개의 차트로 시장을 그리다
- TOP 10
- TOP 10 & 유니버스
- TOP 10 스타일별 분류 및 트레이딩 밴드
-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 글로벌 Best 11
- 글로벌 ETF 5
- 글로벌 Peer 분석
- 기업실적 발표일정
- 수급 빅매치 - 한국전력 · 다나와
- Market Indicators
- 증시 캘린더
- 해외주식 바로알기



Daily 주요지표

	지표	최근값	전일대비	1일전 (%)	5일전 (%)	52주 고가	52주 저가
주식	종합주가지수	2,028.93	10.43	0.52	0.81	2,063.28	1,838.52
	거래량 (백만주)	261.69	(12.94)	(4.71)	(27.55)	425.95	168.83
	거래대금 (십억원)	3,006.87	(276.78)	(8.43)	(27.56)	6,694.45	2,224.80
	KOSDAQ지수	564.93	3.18	0.57	1.03	573.88	483.32
	거래량 (백만주)	328.16	9.16	2.87	(14.69)	570.17	214.72
	거래대금 (십억원)	1,842.87	(21.18)	(1.14)	(21.28)	2,654.17	969.37
채권	국고채 (10년)	3.00	(0.00)	(0.17)	(2.19)	3.76	2.96
	국고채 (3년)	2.51	(0.01)	(0.32)	(2.97)	3.04	2.51
	회사채 (3년 AA-)	2.93	(0.01)	(0.27)	(2.43)	3.45	2.93
	CD (91일)	2.65	0.00	0.00	0.00	2.69	2.65
외환시장*	원/달러	1,024.40	(2.40)	(0.23)	(0.29)	1,126.30	1,008.50
	엔/달러	101.50	0.10	(0.10)	0.18	105.47	95.81
	달러/유로	1.35	(0.00)	(0.15)	(0.48)	1.40	1.31
아시아증시	니케이225 (일본)	15,343.28	127.57	0.84	0.30	16,320.22	13,188.14
	TOPIX (일본)	1,273.27	9.98	0.79	0.62	1,308.08	1,103.94
	가권 (대만)	9,499.36	58.39	0.62	(0.73)	9,593.68	7,737.33
	상해종합 (중국)	2,075.48	21.00	1.02	0.25	2,270.27	1,965.36
	심천종합 (중국)	1,114.76	14.67	1.33	(0.18)	1,162.05	921.70
	항셱 (홍콩)	23,782.11	394.97	1.69	1.37	24,111.55	21,137.61
	H주 (홍콩)	10,605.22	249.49	2.41	1.11	11,638.27	9,159.76

참고: * 전일 17시 30분 기준

김용구

ygn0.1.kim@samsung.com

02 2020 7047

주식시장 전망

7개의 차트로 시장을 그린다

막연한 낙관론 보다는 확실한 신중론에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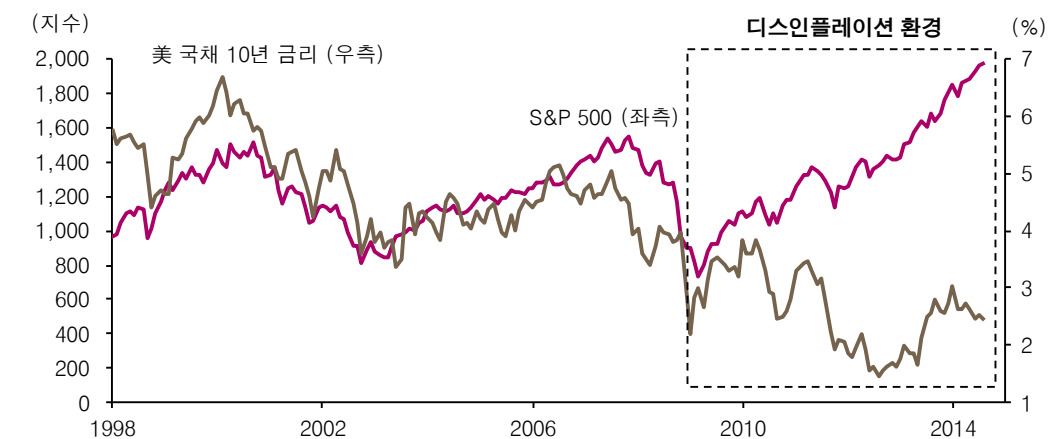
시장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박스권 돌파와 함께 뜨거운 섬머렐리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글로벌 매크로 개선과 완화적 통화기조의 연장이 KOSPI 2천선 안착의 전제조건이었다면, 그 이상의 랠리는 국내변수 안정화가 수반될 때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에서다. 국내변수로 본다면, 정책변화와 실적 불확실성 해소가 선결과제다. 그러나 특단의 경기부양책만으로 질게 드리워진 실적 트라우마의 그늘에서 쉽사리 벗어나기는 어렵다. 2분기는 물론이거니와 3분기 실적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기 때문이다. 설령 금리인하라는 모르면 주사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단발성 처방이라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풋사과를 먼저 움켜쥐는 자가 주식시장의 승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적 견지에서 본다면, 현 시장상황은 맛 좋은 풋사과가 아닌 덜 익은 감일 확률이 높다. 짧은 맛에 이내 던져버리기 보다는, 시기를 봐 홍시를 맛나게 먹는 편이 낫다. 아래 7개의 차트를 살펴보자.

7개의 차트: 1) 미국증시 단기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가와 금리가 동행한다던 김슨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림 1). 인플레이션이 당연시되었던 과거에는, 향후 물가 기대보다는 실질적 성장이 중요했고, 그 성장의 궤를 따라 주가와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디플레이션 타개가 최대현안으로 급부상하며, 선진국 중앙은행마다 양적완화(저금리)와 물가목표 설정을 통한 인플레이 유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연유한 제로금리 환경은 기업 실적개선의 중요 배경이 되었고, 시장은 주가상승으로 화답했다. 주가와 금리 괴리가 확대된 이유다.

그림 1. 금융위기 이후 김슨의 역설 약화: 향후 미국 금리 상승시 주가하락 가능성 잠복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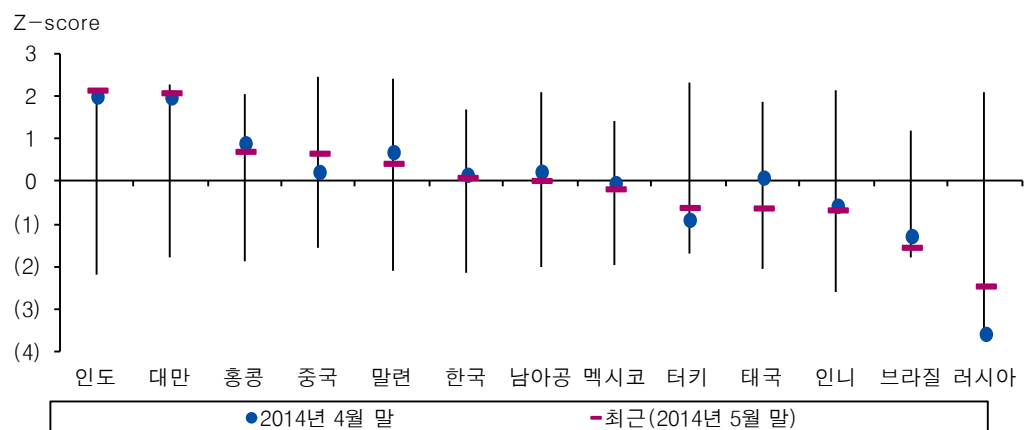
소비회복과 투자확장을 근간으로 고용시장 회복과 함께 완만한 경제성장이 가시화되는 현 상황은 본격적인 금리인상 논의의 출발점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전주 상원 연설에서 엘런의장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유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향후 매크로와 기업 펀더멘탈의 추가적 개선에서 오는 서프라이즈의 크기 보다는 금리인상 논의에서 야기된 쇼크 충격이 더 클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논리로 10월말 테이퍼링 종료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변수일 수 있다.

미국증시의 단기조정과 변동성 확대는 국내증시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경기부양책과 밸류에이션 메리트에서 일정수준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숨고르기에서 완전히 비켜 서있다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7개의 차트: 2) 국내증시, 외국인 매매 지속 가능성 판단

펀드환매가 쉬 찾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수급의 중요 버팀목은 외국인 매매다. 결국, 향후 장세 판단을 위해서는 외국인 매매 지속 가능성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글로벌 밸류 펀드를 중심으로 선진증시에 대한 차익실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선진증시의 대안은 신흥증시가 될 것인데, 정책(인도네시아·인도)과 실적변수(대만)의 선명성에 따라 수급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그림 2).

그림 2. GEM 펀드 내 국가별 편입비중 분석: 국내증시 외국인 수급은 중립이상



참고: GEM 펀드 내 국가별 편입비중 표준정규화

자료: EP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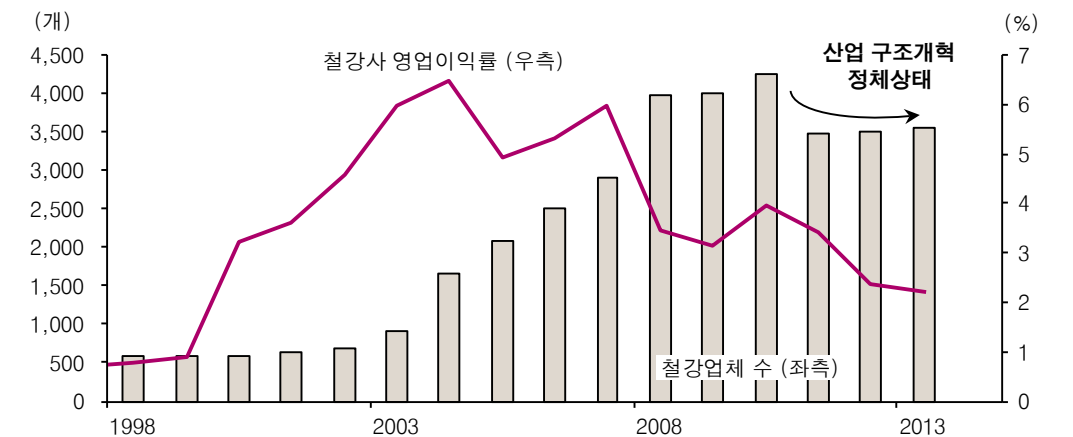
이후의 상황변화를 예상해보면, 국내증시 외국인 수급은 중립이상의 행보를 보일 공산이 크다. 미국증시 조정 이후 높은 수준의 거시 건전성을 확보한 우리시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될 수 있고, 중국 매크로 개선에 따른 동반 자금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정책변화를 통해 시장의 선명성 역시 개선된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적 리스크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테이퍼링 이후 신흥국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부담요인이다. 또한, 정책변화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제한적 매수우위를 예상하는 이유다.

7개의 차트: 3) 양날의 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해결 되었는가?

최근 중국 매크로 지표 개선이 연이으며, 만연했던 불안감은 잊혀졌던 기대감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연간 경제성장률 7.5% 사수를 자신하고 있고, 부동산규제 완화와 함께 소규모 부양패키지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정책 방향이 개혁에서 부양으로 회귀한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국내증시 내 화학·철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중국 경기 민감주(Old China Play)의 저점반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양기조 선회는 역으로 경제 구조개혁 의지가 상당부분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단기적으로 매크로 개선의 성과를 얻는 대신 공급과잉 산업 구조개혁과 잠재적 금융 리스크 완화 등, 경제 체질개선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맞바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이는 중국 경기의 잠재 리스크 요인이자, 관련 중국기업들과 경쟁관계를 형성 중인 국내 Old China Play에게는 중장기 업황 턴어라운드의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함께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기관 러브콜에 힘입은 관련주 반등의 한계가 자명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림 3. 중국 경기회복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공급과잉 산업 구조개혁은 뒷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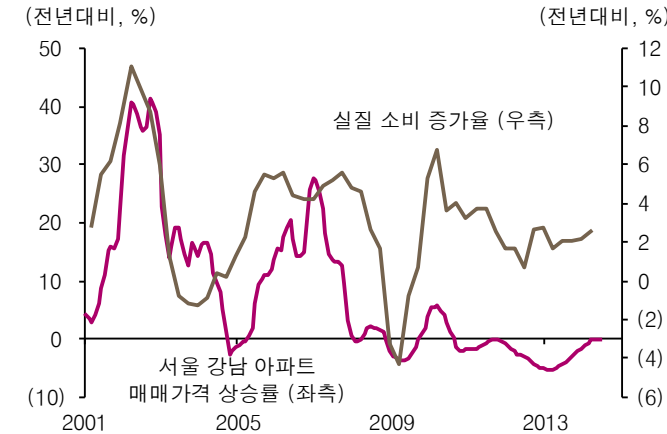
자료: CEIC

7개의 차트: 4) 부동산 시장 정상화, Mission Impossible에 도전하라!

2기 경제팀 경제정책의 핵심은 가계 소득환경 개선과 내수 소비경기 활성화다. 선결과제는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일 것이다. 향후 예고된 정부정책 방향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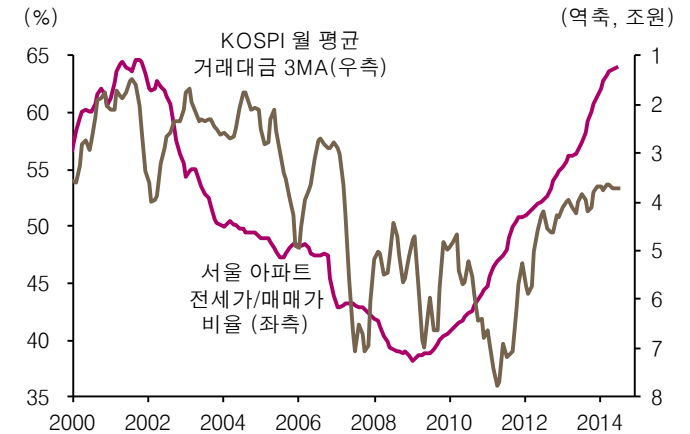
실제로, 내수경기 침체는 상당부분 주택시장 부진에서 비롯된다. 주택 매매가격 부진은 소득효과의 위축을 통해 소비경기 악화로 직결되고 있고, 전세대란 문제는 가계 여유자금의 심각한 정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5). 주택 보유는 새로운 기회와 가치창출의 근간이 되기 보다는 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심화라는 리스크의 원천으로 변모했고, 전세 생활자는 소비와 투자활동에 나설 여력을 상실한 채, 전세비용 충당에 허덕일 뿐이다.

그림 4. 주택시장 부진은 내수 소비여건 악화로 파급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그림 5. 아파트 전세가 비율과 증시 거래대금 추이



자료: KRX, 국민은행

시장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1) LTV·DTI 비율규제 완화(금융업권별, 지역별 규제 완화), 2) DTI 산정시 인정소득 범위 추가 확대, 3)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철폐, 4) 재건축 규제개선, 5)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6)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24일경 정책발표 예상).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정중동의 움직임만 포착될 뿐이다. 매도호가에만 변화가 생겼을 뿐, 매수의를 타진하는 이들은 아직 드물다.

관건은 정책자극이 아닌, 분명한 정책의지와 구체적인 정책효과다. 워낙 오랫동안, 복잡하게 꼬인 탓에 선언적인 1회성 정책변화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대출규제 완화를 넘어, 투자대상으로서 부동산 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수요 감소와 전세공급 증가 양방향에 걸친 제도적 방비가 중요하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경쟁력을 체감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이 절실하다.

24일로 예고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새로운 변화를 향한 출발점으로 판단한다. 시장측면에서 본다면 호재일수 있겠지만, 주가반영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추가적인 의미부여를 위해서는 매매가격 반등과 전세가격의 하락반전이 필요하다. 여전히 신중한 시장대응이 중요하다.

7개의 차트: 5) 실적 불확실성 해소의 선행변수인 설비가동률 반등 전환을 주목

실적 불확실성 해소 없이는 한국증시의 유의미한 랠리 가능성은 요원하다. 당사 해외 세일즈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해외 투자자의 한결 같은 푸념은, 한국의 실적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실적 신뢰도가 결여된 상황에서 큰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었다. 이점은 우리가 신중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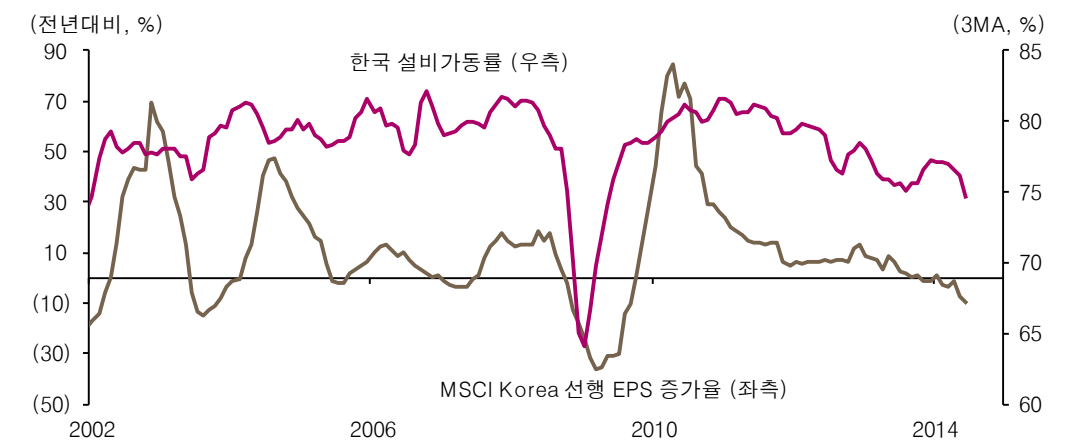
2014년 KOSPI200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124.3조원으로 전년 108.2조원 대비 14.9%의 이익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순이익으로 본다면 현 컨센서스는 95.4조원 수준이고, 이는 2013년의 74.2조원 대비 28.5%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는 국내증시

양대 슈퍼스타 기업을 제외하고 보면 상황은 보다 심각해진다. 2014년 영업이익 예상치는 83.7조원으로 전년의 63.1조원 대비 32.6% 증가를, 순이익은 58.8조원으로 작년 34.8조원 대비 69.1% 증가를 가정하고 있다. 비현실적 실적 추정치들을 통해, 한국증시 실적 불확실성의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적 리스크의 후폭풍이 2분기를 넘어, 3분기 이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익환경 반전을 위한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고, 실적 눈높이의 현실성 있는 하향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 설비가동률이 기업실적 반전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있어, 신뢰도 높은 선행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설비가동률은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에 통상 4~5개월 가량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결국, 상기 지표의 반등전환이 실적 변수 안정화의 1차 테스트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6. 설비가동률은 EPS 증가율에 3~4개월 선행: 실적 불확실성 해소 시그널은 언제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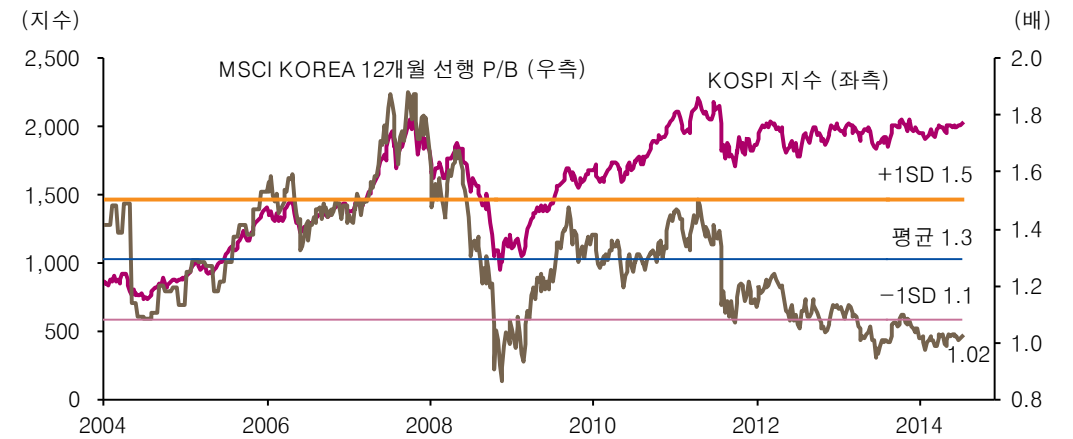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7개의 차트: 6)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된 시장 KOSPI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1) 미국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2) 외국인 매매 지속 가능성은 긍정적이긴 하나 그 수준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3) 최근 중국 매크로 반등은 중장기적으로는 소재·산업재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 약화를 의미하고, 4)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 효과 확인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5) 여전히 실적 불확실성은 시장상승을 제한하는 핵심 부정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증시 P/B가 -1SD 수준에 미달하는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한국증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림 7). 이는 지수 하방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력을 시사함과 동시에, 시장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의 ETF 트레이딩 모델로 본다면 1차 지지선은 1,980pt이고, 2차 지지구간은 1,900선 부근에서 설정 가능하다.

그림 7. 한국증시 저평가 국면 지속 → 지수 하방 지지력 및 외부충격 완충효과 기대



자료: Thomson Reuters

중립이상의 외국인 수급 견인력과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박스권 상단인 2,050pt까지의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돌파 가능성은 실적 우려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3분기 증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다. KOSPI 밴드로 본다면 1,900 ~ 2,050pt 박스권 플레이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KOSPI 2천선 이하 지수형(레버리지) ETF를 통한 인덱스 베타 플레이와 디스인플레이션 환경下 구조적 성장주를 통한 알파 찾기가 중요하다.

이남룡

nr.lee@samsung.com

02 2020 7035

삼성 TOP 10

삼성 TOP 10 연간 수익률 (2014. 1. 2 ~ 7. 22)	삼성 추천 포트폴리오	KOSPI	초과 수익률
	+11.47	+0.87	+10.60

종목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SK케미칼* (006120)	67,000	- 화학 사업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개편하여 실적 개선 본격화 - 임상 3상 중인 백신들의 글로벌 상용화 임박, 자회사 실적 턴어라운드	7/11	(+2.1%)
고려아연 (010130)	423,500	- 대규모 생산능력 확대로 2016년 영업이익 2013년 대비 배 증가 - 구조적 수요 증가로 아연과 연의 가격 상승세 지속될 전망	7/1	(+6.7%)
삼성물산 (000830)	72,200	- 그룹 관계사 상장 발표 이후 계열사 보유지분 가치 재평가 기대 - 2분기 이후 이익 모멘텀 상승과 현금흐름 개선의 가시성 부각	6/11	(-3.0%)
삼성전자우* (005935)	1,093,000	- 이익 전망치 하락보다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에 초점을 둔 매수 기회 - 최근 주가 조정으로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평균 수준으로 회귀	5/29	(-0.2%)
CJ제일제당 (097950)	330,000	- 원화 강세로 원재료 수입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 부각 - 바이오부문 중국 라이선스 가격 반등 기대감에 하반기 실적 회복 전망	5/2	(+6.5%)
아모레퍼시픽 (090430)	1,660,000	- 수익성 높은 면세점과 온라인 채널 판매 증가로 국내 실적 개선세 - 높은 브랜드력 기반 중국 화장품 시장 M/S 증가로 해외 수출 본격화	3/27	(+34.4%)
코웨이* (021240)	94,600	- 중국 대기오염 심화에 따라 공기청정기 수출 고성장 전망 - 국내 렌탈 사업 호조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지속	2/27	(+36.1%)
KCC (002380)	650,000	- 향후 리모델링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전망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시 동사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가치 부각	2/18	(+28.2%)
현대모비스 (012330)	279,500	- 현대차그룹 신차 사이클 도래 및 Capa 확대의 최대 수혜주 - 자동차산업 상승사이클 진입으로 완성차대비 주가 프리미엄 확대 예상	1/2	(-2.7%)
NAVER (035420)	783,000	- 게임·광고사업 등으로 5년내 전체 매출 50%이상이 라인에서 발생 - 경쟁사 위챗 약 40~50조원 평가 감안시 11조원 수준 라인가치 저평가	1/2	(+6.8%)

참고: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ELW 발행 및 유동성 공급 - 한국전력

ETF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KODEX삼성그룹 (102780)	6,060	- 개별 종목보다 그룹주 전체에 대한 최적 접근 - 이동평균선 결집후 정배열 진입 패턴 완성으로 기술적 매수타이밍 발생	5/16	(-0.4%)

참고: 추천 ETF는 TOP-10 포트폴리오와는 별개로 운용되어 수익률 산정에는 반영이 안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 10 포트폴리오 A/S 코멘트 CJ제일제당(097950)

기존 추천 근거

- 원화 강세로 원재료 수입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 부각
- 바이오부문 중국 라이신 가격 반등 기대감에 하반기 실적 회복 전망

경쟁사 증설과 원화강세 완화에 따른センチメント 약화

주요 이슈 점검

· 경쟁사 증설 뉴스 : 에보닉사 라이신 10만톤 증설에 대한 공장 설립 허가 뉴스는 지난 2012년 발표된 내용의 연장선 수준. 동사는 군주 R&D 역량을 집중하여 라이신 부문의 뛰어난 원가경쟁력 확보. 이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늘리고 있어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판단

· 원화강세 진정 : 원/달러 환율이 1,008.50원까지 하락한 이후 전일 종가 기준 1,024.40원으로 추세가 완화. 소재 부문에서 곡물가 하락과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는 통상 5~6개월 가량 지연되기에 현재 주가 하락은 심리적인 조정

· 하반기 라이신 흑자전환 기대감과 곡물가 하락 및 환율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올해 4월 이후 주가는 약 30% 이상 상승. 그러나 최근 원화강세 진정과 곡물가 추가 하락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라이신 중국 현물 스팟가격이 바닥에서 30%이상 상승한 이후 정체되고 있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둔화되는 모습

기술적 분석 및 매매 전략

· 기술적 분석 코멘트 : 현주가는 종가기준 최근 고점대비 약 7.8% 하락. 추세지표인 스톡스틱 지표는 과매도 구간 진입 직전으로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 있으나 주봉기준 20주선인 31만원대는 지지할 것으로 판단

· 매매 전략 : 2분기 실적은 바이오 부문을 제외한 전 사업영역의 고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현 조정은 실적 발표 전후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최근 중국 라이신 현물가격 반등 정체와 2월부터 5월까지 상승한 곡물가격이 3분기에 반영 될 예정으로 주가 반등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응

Top 10 & 유니버스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P/E (배)	P/B (배)	수익률 (%) 1개월
			2013	2014(E)	전년대비 (%)			
1	삼성전자우	24,957	36,785	32,075	(12.8)	8.4	1.2	5.2
2	현대모비스	27,208	2,924	3,086	5.5	7.0	1.0	(0.4)
3	NAVER	25,810	524	822	56.8	35.4	8.3	(0.5)
4	삼성물산	11,503	433	651	50.2	20.3	1.0	(0.6)
5	아모레퍼시픽	10,606	370	455	23.0	31.6	3.8	7.0
6	고려아연	7,991	599	652	8.9	14.1	1.6	14.2
7	코웨이*	7,296	339	382	12.8	23.2	5.6	13.2
8	KCC	6,838	232	297	28.0	24.0	1.2	2.2
9	CJ제일제당	4,562	345	528	52.7	16.5	1.4	(2.2)
10	SK케미칼	1,495	194	199	2.6	23.5	1.0	7.0
11	SK텔레콤	19,621	2,011	1,999	(0.6)	10.4	1.1	1.5
12	현대글로비스	10,031	637	678	6.4	17.6	3.2	(0.2)
13	현대건설	6,897	793	966	21.8	10.2	1.2	19.3
14	한라비스테온공조	5,658	364	404	11.2	15.8	3.0	15.9
15	호텔신라	4,169	87	119	37.4	32.4	4.9	16.0
16	현대백화점	3,148	393	397	1.0	9.6	0.9	2.3
17	SK네트웍스*	2,782	241	260	8.0	13.0	1.0	8.7
18	GKL	2,688	191	179	(6.2)	18.0	5.2	8.1
19	CJ E&M	1,826	58	76	29.8	22.6	1.3	5.3
20	넥센타이어	1,653	177	203	14.8	10.9	1.6	0.6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밸류에이션 지표는 12개월 선행 기준 / 계열사 - 삼성전자, 삼성물산, 호텔신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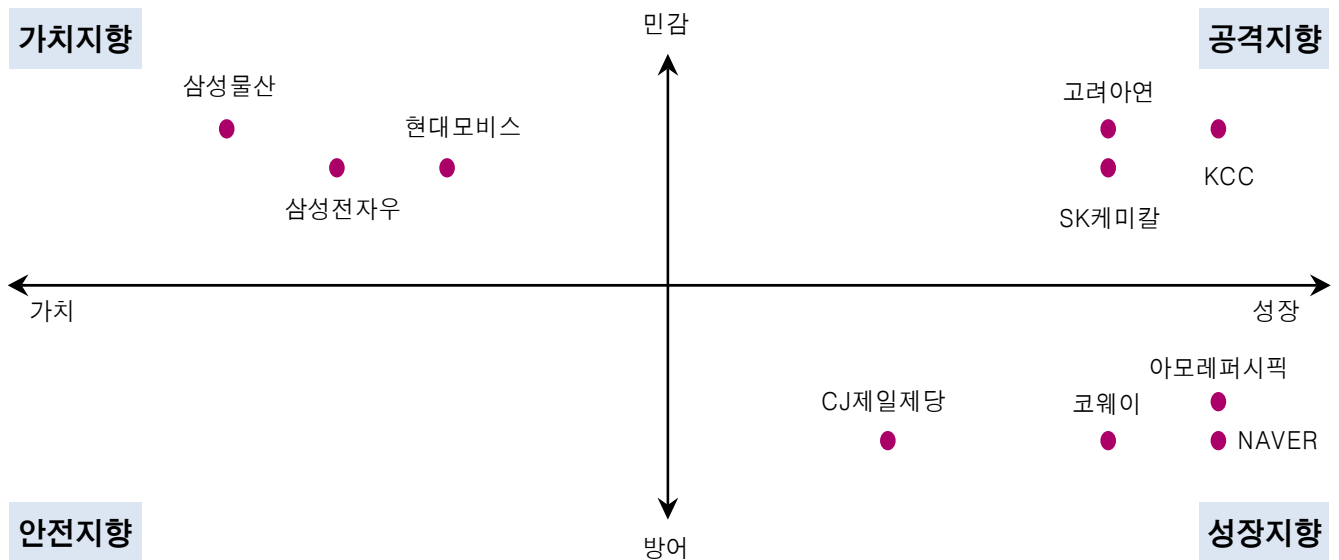
1% 이상 지분 보유 - 호텔신라 / 상기 종목은 시가총액순으로 나열

* 음영 처리된 10개 종목은 현재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투자 유망 종목으로 관리하는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 내 코오롱인더를 편입 제외하고 현대건설을 신규 편입합니다.

TOP 10 스타일별 분류 및 트레이딩 밴드

종목	가치	성장	모멘텀	민감주	방어주	금리민감	환율민감
SK케미칼		○	○	○			○
고려아연		○	○	○			○
삼성물산	○		○	○		○	
삼성전자우	○		○	○			○
CJ제일제당		○			○		○
아모레퍼시픽		○			○		○
코웨이		○			○		
KCC		○	○	○		○	
현대모비스	○			○			○
NAVER		○			○		○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을 가치/성장/모멘텀, 민감주/방어주, 금리민감/환율민감 등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투자자별 성향에 맞는 종목 선택을 위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테크니컬 트레이딩 밴드는 차트 분석상 단기적인 매매를 위한 가격대로서 절대적인 밴드는 아닙니다. 단기 수급 동향 및 돌발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길 권고합니다.

테크니컬 트레이딩 밴드

종목	트레이딩 밴드	근거
SK케미칼	62,500 ~ 72,000	-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62,500원선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5% 구간인 72,000원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
고려아연	375,000 ~ 430,000	-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375,000원선을 중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5% 구간인 430,000원선이 단기 트레이딩 목표
삼성물산	70,000 ~ 82,000	- 4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70,000원선을 중장기 지지선으로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인 82,000원선이 단기 트레이딩 목표
삼성전자우	980,000 ~ 1,250,000	- 주봉 60주 이동평균선 지지 및 직전 박스권 상단의 지지력 견고 - 20일선 이격도 110선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로 설정
CJ제일제당	322,000 ~ 380,000	- 4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322,000원선을 중장기 지지선으로 설정 - 전고점 및 2015년 예상실적 기준 17배 수준 38만원선을 상단 설정
아모레퍼시픽	1,550,000 ~ 1,800,000	- 중기 지지선인 20일 이동평균선 위치 구간인 155만원이 지지선 설정 - 20일선 이격도 110선 가격인 180만원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로 설정
코웨이	79,500 ~ 100,000	- 60일 중장기 이평선 지지 구간이자 예상 실적 대비 20배 구간이 하단 - 20일선 이격도 110선 구간이자 예상실적 대비 25배 구간이 저항선
KCC	610,000 ~ 750,000	- 직전 박스권 돌파 가격대이자 20일 이동평균선 가격인 61만원이 하단 - 20일 이격도 120% 구간이자 예상 실적 대비 28배인 75만원 목표
현대모비스	277,000 ~ 320,000	- 60주선 및 120주선 지지 구간 및 PER 밴드 저점 가격대가 하단 - 중기 박스권 상단 라인이자 전고점 매물대 구간의 의미있는 저항선
NAVER	740,000 ~ 850,000	- 장기이평선 및 6개월 매물대 구간인 70만원 초중반이 단기 하단 - 연중 고점 라인이자,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인 90만원 단기 상단

홍승표

seoungpyo.hong@samsung.com

02 2020 7038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종목	투자 포인트	추천일(수익률)
아이컴포넌트* (059100)	- 독보적인 코팅기술을 바탕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응 가능한 베이스 필름 양산 - 하반기 애플의 아이워치를 필두로 한 플렉서블 채택 기기 출시로 동사의 기술력 부각 -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80억 수준으로 웨어러블 기기 보급에 의한 급성장 기대	7/7 (+14.0%)
라이온캡텍* (171120)	- 건축 내외장재용 인조대리석 국내 3위, 플라스틱 첨가제인 합성왁스 국내 1위 업체 -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인조대리석 공장의 생산능력 2배로 증설 완료 - 화재 복구 완료 및 고객사인 한샘의 고성장에 따라 하반기 빠른 이익 증가를 예상	7/2 (+18.5%)
SK케미칼* (006120)	- 고수익성의 PETG 증설,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험사업으로 화학 부문 실적 개선 본격화 - 인플루엔자 백신(임상 3상 종료), 수두 및 폐렴 백신(임상 3상 중) 등 신약 상용화 임박 - 글로벌 상위제약사와 계약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혈우병 치료제 등 파이프라인 부각	6/20 (+8.0%)
삼화페인트* (000390)	- 건축물 준공면적 확대 및 친환경 페인트 사용량 증가로 수익성 개선세 지속 - 2013년 급증했던 조선 수주 물량의 발주 진행으로 조선용 페인트 수요 증가 - 올해 예상순이익은 392억원으로 PER 8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6/13 (+10.4%)
국보디자인* (066620)	-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국내 1위 업체로 리모델링 수요 확대에 의한 중장기 성장성 부각 - 2014년 말 예상 순현금은 650억원 수준으로 현시가총액의 50%이상 보유 - 올해 예상순이익은 170억원 수준으로 PER 7.7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6/13 (+28.5%)
동서* (026960)	- 국내 커피믹스 분야 1위 기업으로 맥심과 카누로 대표되는 파워브랜드 소유 - 매년 1,600억원 전후의 안정적인 순이익을 바탕으로 3%중반대의 시가배당율 유지 - 올해 예상순이익은 1,400억원 수준으로 PER 11.5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6/3 (+7.5%)
한양이엔지* (045100)	- 주고객사인 삼성전자의 화성 17라인 투자와 A3라인 투자 가시화로 수익성 개선 기대 - 반도체 분야의 특수 설비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우주항공 분야 설비로 시장확대 진행중 -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은 230억원 으로 PER 5.8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5/20 (+3.6%)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주식전략팀 해외주식

e.trading@samsung.com

02 20207306

글로벌 Best 11

글로벌 Best 11 누적 수익률 (2014. 1. 2. ~ 2014. 7. 21.)		글로벌 Best 11		MSCI World& China	초과 수익률
		-2.18%		+3.01%	-5.19%pt
종목 (티커)	시장	주가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중국중철 (390)	홍콩	HKD 4.09	- 아시아 최대 종합형 건설 그룹사로 막대한 자금력과 수주 능력 보유 - 철도부가 발표한 12.5계획과 철도 투자 자금조달 체제 개혁의 수혜주	7/11	(+1.0%)
iShares 유럽 (IEV)	미국	USD 47.58	-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및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 기대 -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	7/7	(-3.5%)
S&P EM 아시아 (GMF)	미국	USD 85.21	-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시장친화적 통화정책으로 위험자산 수요 증가 - 고위험 고수익 추구 투자자에게 적합한 아시아 신흥국 투자 ETF	6/27	(+3.4%)
iShares MSCI 중국 (2801)	홍콩	HKD 20.65	-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기 호조 및 인민은행의 탄력적 유동성 관리 기대 - 중국 6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51.1로 경기 확장 국면 진입	6/24	(+4.4%)
노무라 토픽스 ETF (1306)	일본	JPY 1283	- 3분기 미국 경기 모멘텀 회복에 따른 직접적 수혜 전망 -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선진시장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6/20	(-1.8%)
몬산토 (MON)	미국	USD 118.96	- 4년째 시장점유율 및 제품 Mix의 개선이 동반되는 성장에 예상 - 경쟁사 대비 우월한 Bio기술은 동사의 장기 성장 기반	5/26	(-0.8%)
미국 산업재 ETF (XLI)	미국	USD 54.21	- GE, 보잉, 유나이티드테크놀러지, 3M, 유니온퍼시픽 등 대표 산업재 보유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 강세 지속 전망	5/9	(+2.3%)
AT&T (T)	미국	USD 35.96	- 연간 배당률이 5%를 상회하는 미국 대표 배당주 - 유선전화 서비스 종료 및 고마진 무선 서비스 사업 성장 전망	4/16	(+0.8%)
엑슨 모빌 (XOM)	미국	USD 103.08	- 경쟁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 및 ROE에도 밸류에이션저평가 - 말레이시아 2억 큐빅피트 규모의 신규 천연가스 유전에서 생산 시작	1/27	(+8.7%)
구글 (GOOGL)	미국	USD 598.44	- 적자 사업부인 모토로라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로봇업체 인수합병 및 팍스콘과의 제휴를 통한 로봇사업 본격 진출	1/2	(+6.7%)
존슨앤 존슨 (JNJ)	미국	USD 101.27	- 연이은 신약 출시로 제약 사업부문 매출 호조세 지속 - 미국 FDA로부터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 승인되며 기대감 상승	1/2	(+10.6%)

참고: 편입비중은 균등하게 배분. 벤치마크 산출에 대한 시차 관계상 증가는 전일종가로 기록

글로벌 ETF 5

종목 (티커)	주가	펀드 개요 및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iShares MSCI China (2801)	HKD 20.65	- MSCI China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ETF로 홍콩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 - 주요 보유종목은 텐센트홀딩스, 차이나모바일, 중국건설은행, 페트로차이나 등 -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기 호조 및 인민은행의 탄력적 유동성 관리 기대 - 중국 6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51.1로 경기 확장 국면 진입	6/24	(+4.4%)
Nomura TOPIX (1306)	JPY 1283	- 일본의 토픽스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도요타자동차, 소프트뱅크, 미즈호 파이낸셜, NTT, 캐논 등 - 3분기 미국 경기 모멘텀 회복에 따른 직접적 수혜 전망 -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선진시장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6/20	(-1.8%)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XLI)	USD 54.21	- 미국 내 산업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GE,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3M, 유니온퍼시픽 등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가 2014년에도 강세가 지속될 전망	1/3	(+4.9%)
PowerShares QQQ NASDAQ 100 (QQQ)	USD 96.00	- 나스닥 1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시스코시스템즈 등으로 IT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대다수 글로벌 IB는 2014년 미국시장에서 매우 유망한 섹터로 IT 섹터 추천	1/3	(+10.8%)
iShares Europe (IEV)	USD 47.58	- 유럽 대표종목 지수인 S&P Europe 350지수를 추종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네슬레, HSBC홀딩스, 노바티스, 로슈, 보다폰 등 -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및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대표적 유럽 투자 ETF인 IEV 강세 지속 전망	1/3	(+2.5%)

참고: 티커 2801은 홍콩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티커 1306은 동경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티커 XLI, QQQ, IEV는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주식전략팀 해외주식

e.trading@sam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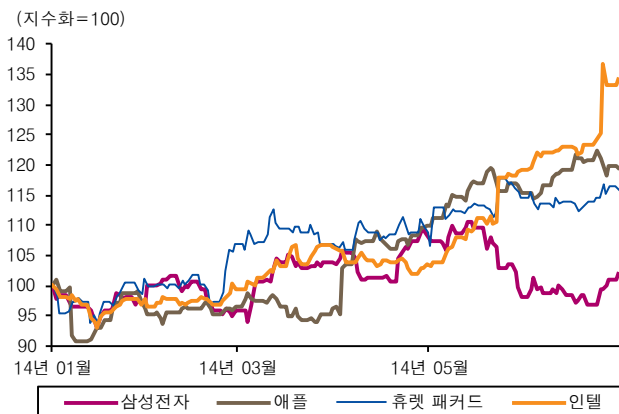
02 2020 7306

글로벌 Peer 분석

실적 전망에 따라 엇갈리는 IT 개별 종목 주가

- IT 하드웨어에서는 인텔이 실적 호조에 힘입어 크게 상승. 구글과 페이스북이 나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며 IT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peer 대비 outperform. 현대자동차가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 글로벌 통신주 일제히 상승. 특히 차이나모바일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은행 종목들의 주가는 지역별로 엇갈리는 행보를 보임. 보험은 삼성생명을 제외하고 강보합으로 마감
- 화학 섹터와 정유 섹터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며 일제히 상승 마감. 음식료 업체 중 농심이 크게 하락. 제약 섹터는 지난 주 하락 후 반등에 성공

IT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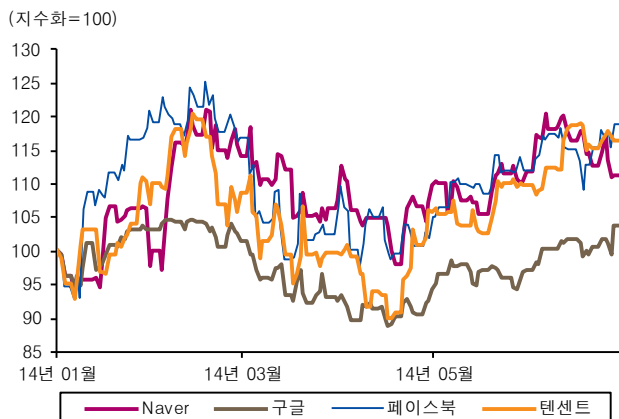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삼성전자	1.3	7.7	17.3	(12.0)	3.6
애플	4.8	14.8	31.3	11.5	3.3
휴렛 팩커드	2.3	9.3	23.5	4.3	0.9
인텔	2.9	15.4	18.9	13.0	12.8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자료: Bloomberg

IT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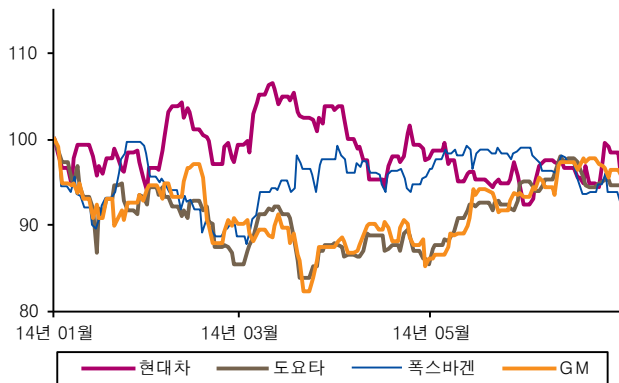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네이버	12.1	42.5	34.3	114.0	(0.5)
구글	3.8	22.7	17.3	20.4	5.6
페이스북	9.7	48.4	19.3	63.0	7.6
텐센트	12.1	40.2	32.4	30.2	7.2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자료: Bloomberg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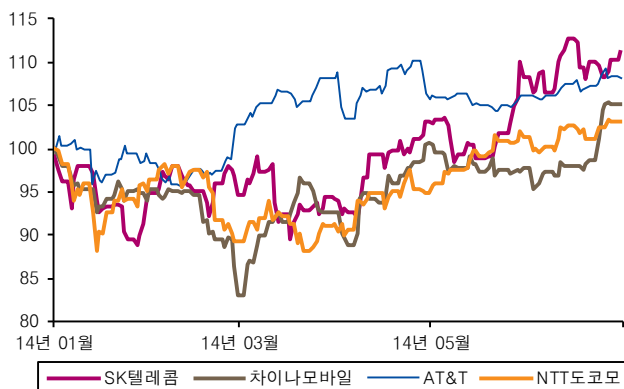
(지수화=100)



자료: Bloomberg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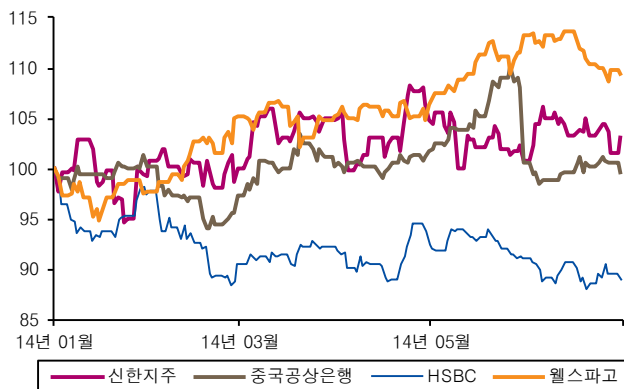
(지수화=100)



자료: Bloomberg

은행

(지수화=100)



자료: Bloomberg

보험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현대자동차	1.0	6.5	15.5	(9.7)	5.0
토요타자동차	1.2	9.8	12.8	7.3	(0.0)
폭스바겐	0.9	8.4	11.3	16.0	(6.7)
제너럴 모터스	1.5	13.2	12.7	(11.1)	3.3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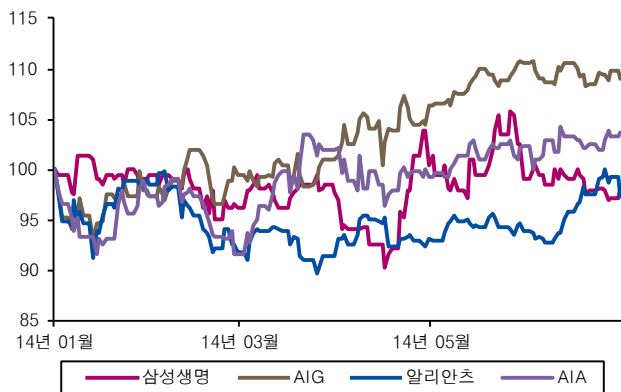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SK텔레콤	1.3	10.7	12.4	11.4	1.5
차이나모바일	1.6	12.8	13.0	(13.8)	9.9
AT&T	2.0	13.8	15.4	4.5	1.6
NTT 도코모	1.3	14.8	8.8	8.7	2.5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신한금융지주	0.8	10.1	7.6	14.1	3.0
중국 공상은행	0.8	4.3	19.0	6.0	(0.6)
HSBC 홀딩스	1.0	11.4	9.5	1.4	(0.7)
웰스파고	1.6	12.5	13.4	5.0	(3.5)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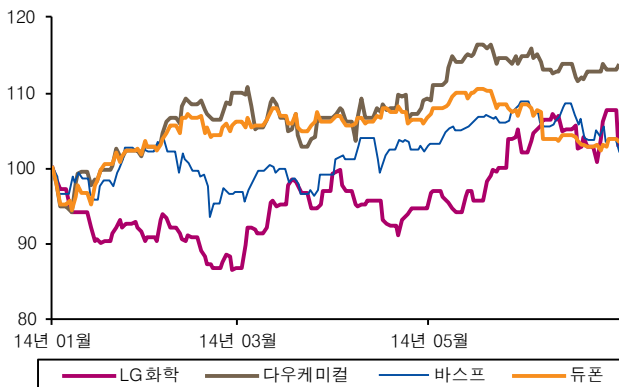
(지수화=100)



자료: Bloomberg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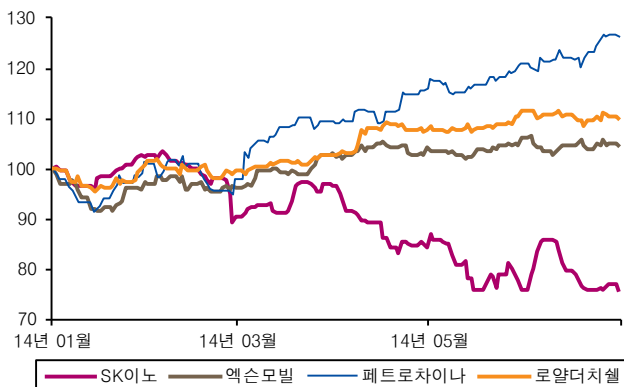
(지수화=100)



자료: Bloomberg

정유

(지수화=100)



자료: Bloomberg

유통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삼성생명	0.9	18.6	5.2	6.6	(0.5)
AIG	0.7	12.4	6.6	(2.1)	(0.8)
알리안츠	1.1	9.4	11.7	3.6	4.1
AIA	2.3	20.2	12.6	17.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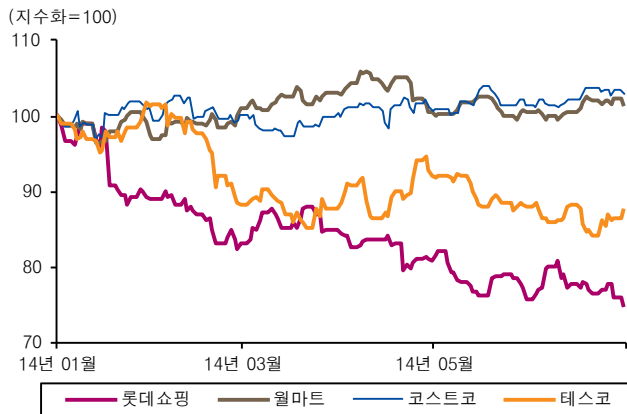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LG화학	1.6	16.0	10.4	(6.2)	1.8
다우 케미컬	2.4	17.6	14.4	18.6	(1.2)
바스프	2.6	14.0	19.4	9.9	(5.4)
듀폰	3.8	16.3	22.4	3.7	(4.2)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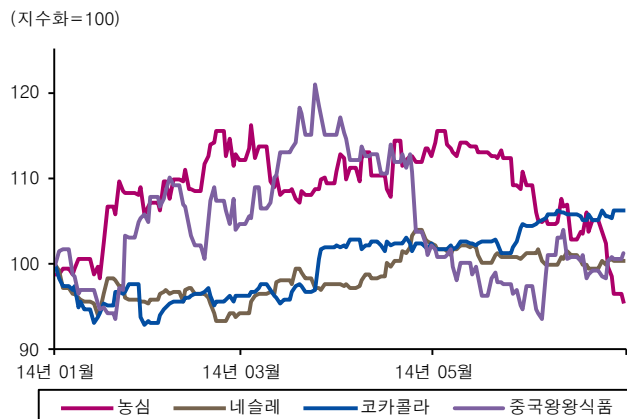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SK이노베이션	0.6	12.3	4.6	3.4	(0.5)
엑슨 모빌	2.4	13.1	18.9	6.9	(0.7)
페트로차이나	1.2	11.4	11.0	—	7.9
로알더치셀	1.4	11.2	12.4	19.0	(0.3)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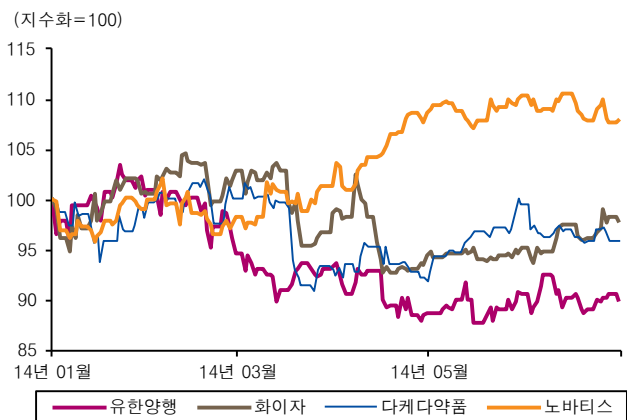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음식료



자료: Bloomberg

제약



자료: Bloomberg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롯데쇼핑	0.5	10.4	5.2	(2.2)	(0.3)
월마트	3.0	14.8	20.7	1.2	1.4
코스트코	4.2	25.5	17.4	2.2	1.5
테스코	1.5	11.1	13.6	(21.3)	(4.0)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농심	1.0	15.9	6.5	7.0	(12.5)
네슬레	3.2	19.8	17.0	2.1	(1.0)
코카콜라	5.5	20.3	27.4	0.4	1.7
중국왕왕식품	8.4	24.5	36.6	11.5	4.8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P/B (배)	P/E (배)	ROE (%)	EPS 증가율 (%)	1개월 수익률 (%)
유한양행	1.5	20.0	8.0	26.7	(2.5)
화이자	2.6	13.5	17.6	1.0	1.9
타케다약품	1.6	23.5	4.0	47.1	(3.5)
노바티스	2.8	16.7	15.0	4.1	(1.9)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기업실적 발표일정

한국 주요 기업 실적발표 일정

회사명 (십억원)	잠정실적 발표예정일	Fnguide Consensus			영업(잠정)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삼성전자	7월 8일	52,970.1	8,047.2	6,972.6	52,000.0	7,200.0	-
KT&G	7월 17일	982.5	266.1	192.3	992.3	286.3	184.3
LG화학	7월 18일	5,837.4	418.5	328.4	5,868.8	359.6	226.7
삼성엔지니어링	7월 22일	2,244.9	31.0	20.9	2,197.7	77.1	24.1
LG하우시스	7월 24일	787.5	54.5	39.9			
LG디스플레이	7월 24일	5,929.0	180.7	107.8			
LG생활건강	7월 24일	1,147.5	127.0	91.0			
대림산업	7월 24일	2,395.3	83.5	70.8			
SK하이닉스	7월 24일	3,925.4	1,120.6	914.0			
POSCO	7월 24일	15,954.2	805.6	553.7			
LG전자	7월 24일	15,533.8	530.0	292.1			
OCI	7월 24일	798.9	35.9	20.7			
두산중공업	7월 24일	5,033.1	264.7	56.4			
현대차	7월 25일	23,429.1	2,227.4	2,387.6			
기아차	7월 25일	12,819.2	858.7	975.5			
현대중공업	7월 25일	13,637.5	(0.7)	(48.8)			
삼성물산	7월 25일	7,382.6	156.5	136.3			
SK이노베이션	7월 25일	16,101.4	161.8	159.2			
현대제철	7월 25일	4,297.4	315.2	258.9			
고려아연	7월 25일	1,190.1	161.3	129.1			
롯데케미칼	7월 25일	3,880.7	91.0	62.7			
호텔신라	7월 25일	666.0	40.5	23.9			
에스원	7월 25일	424.7	46.0	30.1			
현대산업	7월 25일	1,123.5	50.0	28.6			
두산	7월 25일	5,870.0	306.2	71.4			
현대모비스	7월 28일	9,358.9	791.9	940.1			
한국타이어	7월 29일	1,782.5	266.3	201.3			
LG유플러스	7월 29일	2,833.8	163.6	86.2			
스카이라이프	7월 29일	165.7	25.8	17.6			

참고: 컨센서스는 K-IFRS 연결기준 1분기 실적으로 2014년 7월 10일 기준

자료: Fnguide, 삼성증권

미국 주요 기업 실적발표 일정

(EPS, 달러)	잠정실적 발표예정일	발표치	예상치	전년동기	발표시간
General Electric	7월 18일	0.39	0.39	0.36	개장 전
Honeywell	7월 18일	1.38	1.36	1.28	개장 전
Johnson Controls	7월 18일	0.84	0.83	0.78	개장 전
VF Corp	7월 18일	0.36	0.35	1.27	폐장 후
BB&T Corp	7월 21일	0.70	0.75	0.77	개장 전
Netflix	7월 21일	1.15	1.15	0.49	폐장 후
Texas Instruments	7월 21일	0.62	0.62	0.42	폐장 후
Coca-Cola	7월 22일		0.63	0.63	개장 전
Comcast	7월 22일		0.72	0.65	개장 전
Credit Suisse	7월 22일		0.59	0.52	개장 전
Domino's Pizza	7월 22일		0.65	0.57	개장 전
DuPont	7월 22일		1.17	1.28	개장 전
Gannett	7월 22일		0.63	0.58	개장 전
Harley-Davidson	7월 22일		1.46	1.21	개장 전
Kimberly-Clark	7월 22일		1.50	1.41	개장 전
Lockheed Martin	7월 22일		2.66	2.64	개장 전
McDonald's	7월 22일		1.44	1.38	개장 전
United Tech	7월 22일		1.74	1.65	개장 전
Verizon	7월 22일		0.90	0.73	개장 전
Apple	7월 22일		1.23	7.47	폐장 후
Microsoft	7월 22일		0.61	0.59	폐장 후
Biogen Idec	7월 23일		2.84	2.30	개장 전
Boeing	7월 23일		1.99	1.67	개장 전
Dow Chemical	7월 23일		0.72	0.64	개장 전
EMC	7월 23일		0.43	0.42	개장 전
PepsiCo	7월 23일		1.23	1.31	개장 전
Facebook	7월 23일		0.32	0.19	폐장 후
Qualcomm	7월 23일		1.21	1.03	폐장 후
3M	7월 24일		1.91	1.71	개장 전
Boston Scientific	7월 24일		0.12	0.10	개장 전

참고: 현지시간 기준

자료: Briefing.com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수급 빅매치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Top-Pick

한국전력(A015760)



외국인 2일 연속 순매수, 기관 3일 연속 순매수

다나와(A119860)



외국인 1일 연속 순매수, 기관 2일 연속 순매수

기관 순매수 Top-Pick

강원랜드(A035250)



기관 2일 연속 순매수

파라다이스(A034230)



기관 1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Top-Pick

대림산업(A000210)



외국인 4일 연속 순매수

컴투스(A078340)



외국인 1일 연속 순매수

참고: 상기에서 제시한 종목들은 매수추천 의미가 아닌 뉴스와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 특징종목을 나열한 것이며, 시간외대량매매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현대차	214	1	기업은행	130
삼성전자	177	2	GS건설	101
하나금융지주	155	3	아모레퍼시픽	90
LG디스플레이	114	4	현대산업	74
삼성전기	105	5	삼성중공업	55
POSCO	103	6	KODEX 200	43
현대미포조선	101	7	OCI	38
LG전자	74	8	이마트	34
KB금융	66	9	화인베스틸	25
대림산업	62	10	LG하우시스	21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게임빌	40	1	다음	87
컴투스	36	2	파라다이스	71
마кро젠	31	3	선데이토즈	22
아프리카TV	13	4	캠트로닉스	16
세운메디칼	12	5	바이로메드	16
다나와	11	6	내츄럴엔도텍	13
아이센스	11	7	셀트리온	13
인터파크	9	8	미디어플렉스	12
MDS테크	7	9	엑토즈소프트	10
CJ오쇼핑	7	10	KG이니시스	7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KODEX 레버리지	717	1	KODEX 인버스	512
GS건설	116	2	현대차	275
KODEX 200	109	3	SK	146
삼성중공업	82	4	SK이노베이션	136
기업은행	79	5	현대미포조선	119
이마트	76	6	기아차	111
현대산업	75	7	대림산업	109
아모레퍼시픽	74	8	한국가스공사	77
LG디스플레이	62	9	현대모비스	77
강원랜드	51	10	삼성물산	77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다음	127	1	에스엠	37
서울반도체	32	2	제로투세븐	37
KH바텍	27	3	인포바인	32
파라다이스	25	4	게임빌	20
오스템임플란트	21	5	메디톡스	17
바이오스페이스	21	6	차바이오텍	13
이오테크닉스	17	7	이지바이오	12
솔루에타	14	8	솔브레인	11
토비스	12	9	우리산업	9
라이온캡텍	11	10	하림	8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주요종목

유가증권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LG디스플레이	62	1	삼성전기	105
대우건설	38	2	POSCO	103
한국전력	34	3	현대건설	51

코스닥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서울반도체	32	1	마кро젠	31
KH바텍	27	2	세운메디칼	12
바이오스페이스	21	3	다나와	11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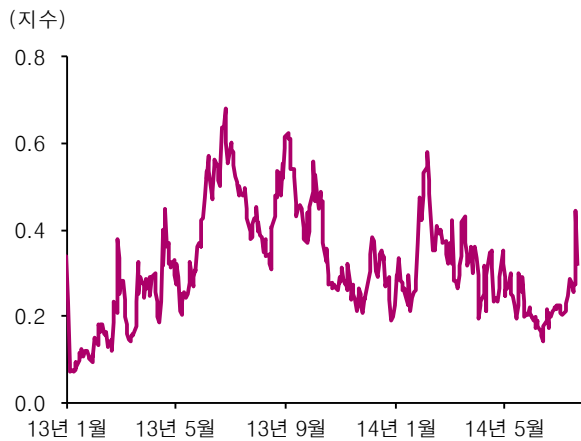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장단기 금리차 축소 지속

- 장단기 스프레드는 최근 그 폭이 더 축소되는 모습. 이는 1) 3분기 중 한국은행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선반영, 2) 美 연준 금리인상시기가 시장의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른 결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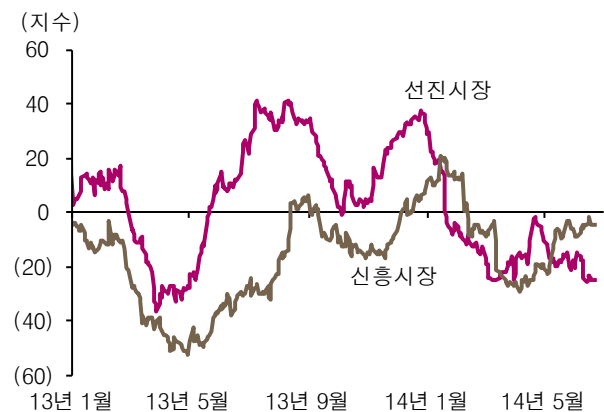
Macro Indicator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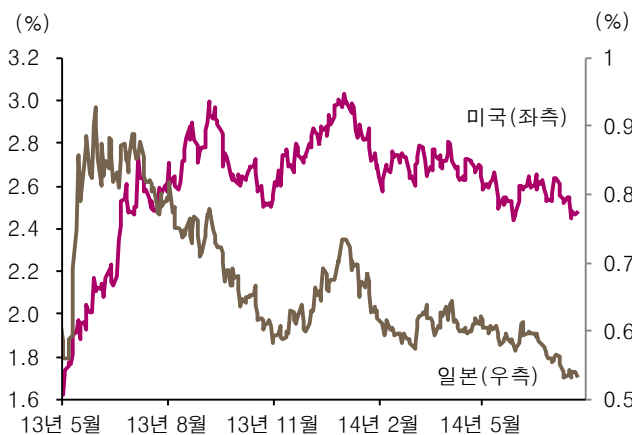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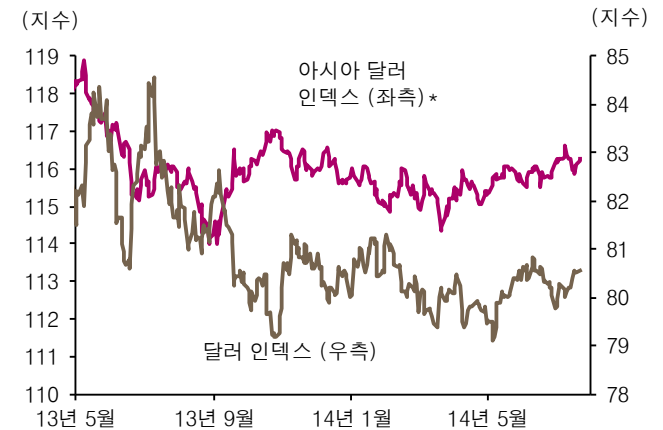
미국/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참조: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달러 인덱스와 아시아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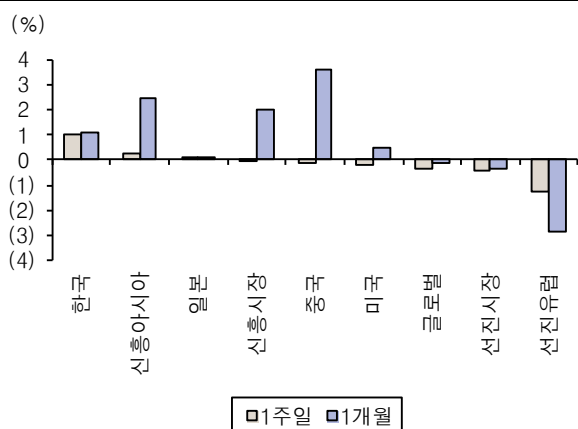


참조: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10개국 통화 가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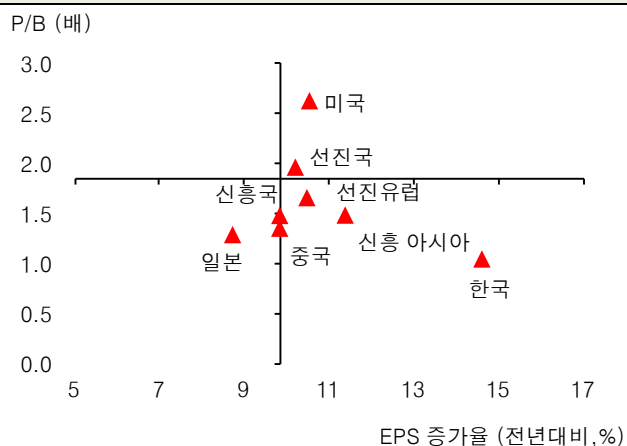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 동향

MSCI 지역별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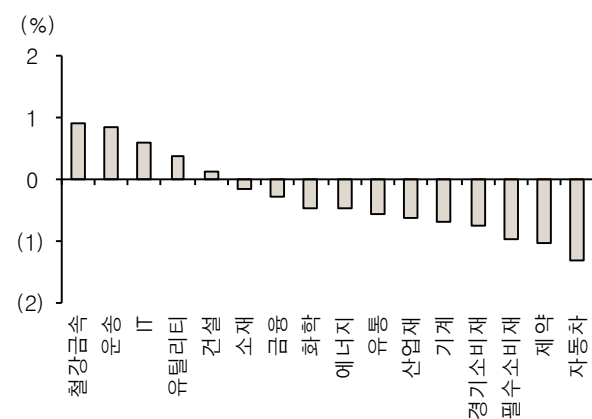
참고: 7월 14일 ~ 7월 2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지역별 12개월 선행 기준 예상 EPS 증가율 및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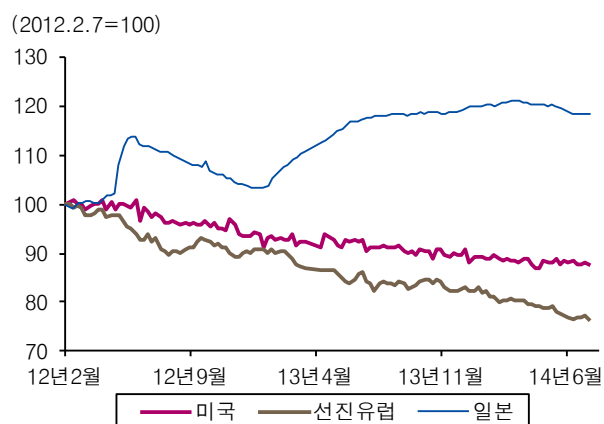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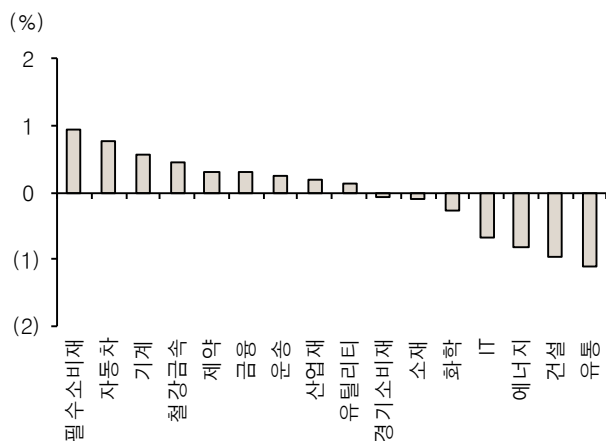
참고: 7월 14일 ~ 7월 2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주요 국가별 2014년 예상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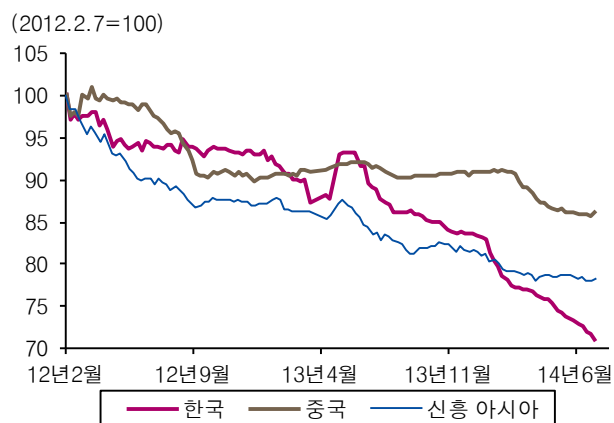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신흥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7월 14일 ~ 7월 2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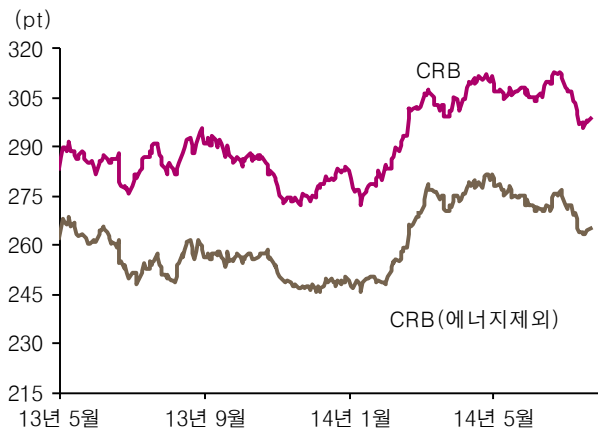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주요 국가별 2014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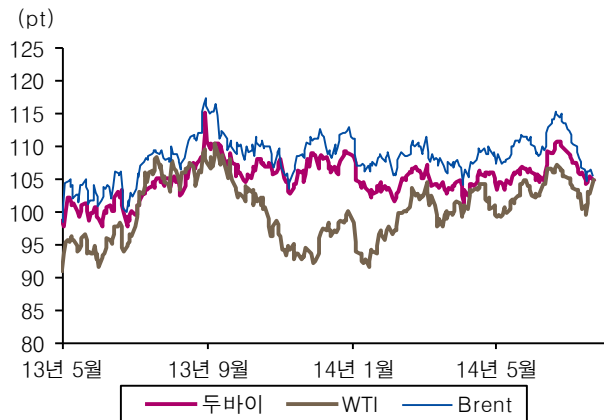
상품 및 산업 Indicators

TR/Jefferies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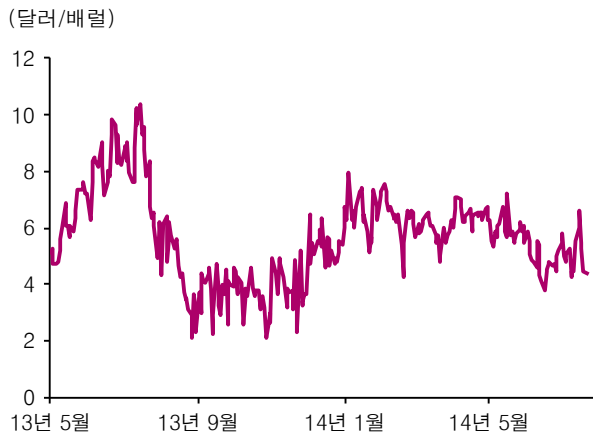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주: CRB(농산물+에너지+비철금속)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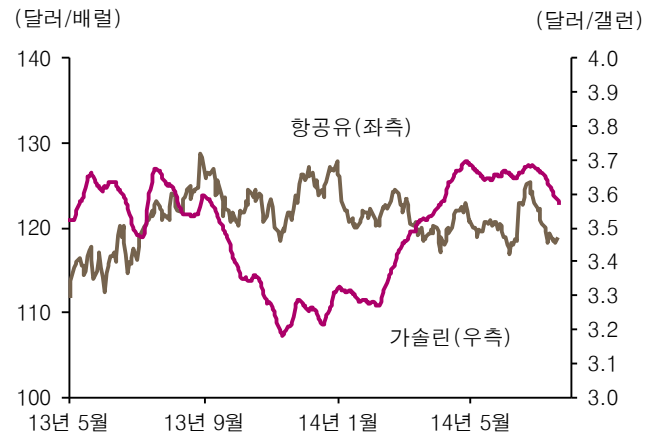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싱가포르 정제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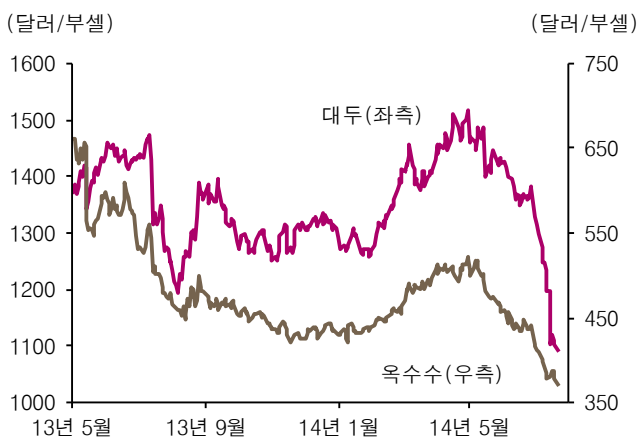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항공유 & 가솔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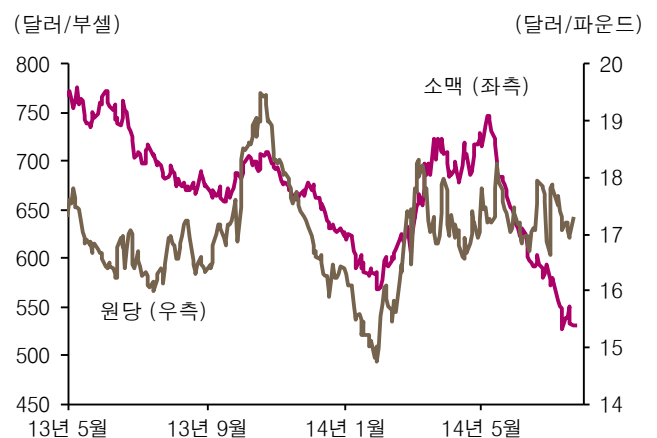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두 & 옥수수



자료: Thomson Reuters

소맥 & 원당



자료: Thomson Reuters

LME(비철금속)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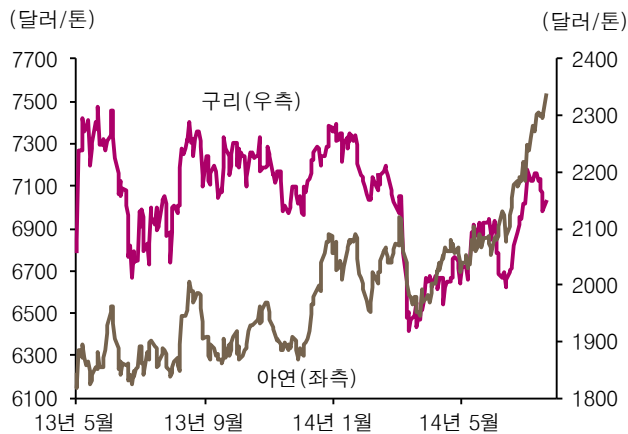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귀금속 가격



자료: Thomson Reuters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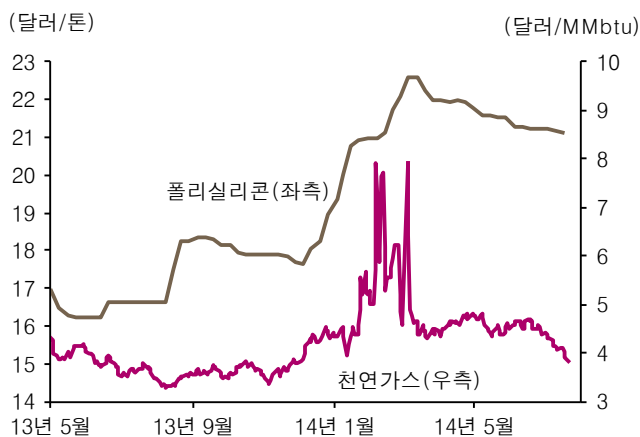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철강 유통가격



자료: Bloomberg

폴리실리콘 & 천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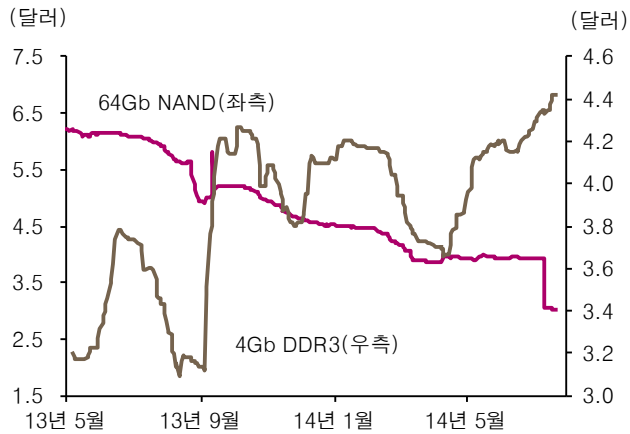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PVinsights

석탄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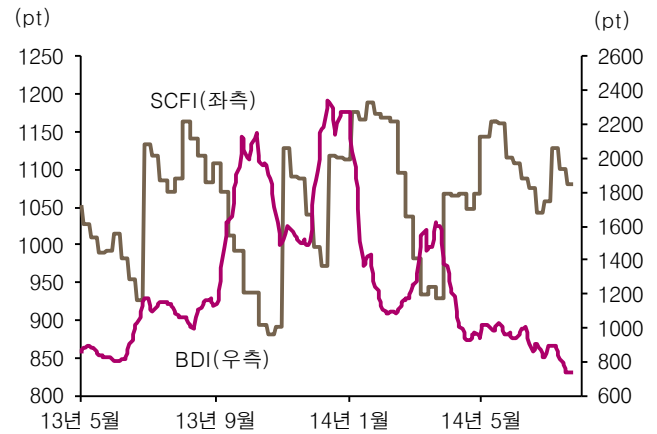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 & NAND 현물 가격



자료: DRAmExchange

해상운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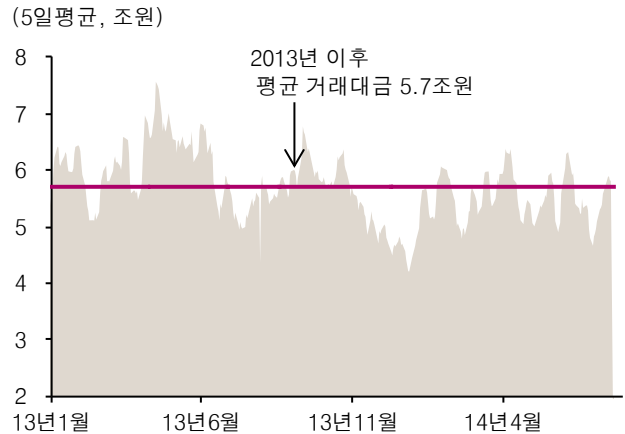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항운교역소, Thomson Reuters

한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KOSPI & KOSDAQ 거래대금



자료: KRX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증시 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7/21	22	23	24	25
* 증시휴장 - 일본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전월대비) (6월 -/E 0.3%/P 0.4%) 5월 FHFA주택가격지수(전월대비) (5월 -/E 0.2%/P 0.0%) 6월 기존주택매매(전월대비) (6월 -/E 2.0%/P 4.9%)	(미국)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전주대비) (7월3주 -/E -/P -3.6%) (유럽) 7월 소비자자기대지수 (7월 -/E -/P -7.5)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천건) (7월3주 -/E 310/P 302) 7월 마켓 제조업PMI(잠정치) (7월 -/E 57.5/P 57.3) 6월 신규주택매매(천건) (6월 -/E 475/P 504) (한국) 2분기 GDP(잠정, 전년대비) (2분기 -/E 3.7%/P -3.9%) 6월 할인점 매출(전년대비) (6월 -/E -/P 1.2%) 6월 백화점 매출(전년대비) (6월 -/E -/P 0.8%) (중국) 7월 HSBC 제조업 PMI (7월 -/E 51.0/P 50.7) (유럽) 7월 마켓 유로존 PMI 제조업 (7월 -/E 51.8/P 51.8)	(미국) 6월 내구재 주문(전월대비) (6월 -/E 0.4%/P -0.9%) (유럽) 6월 M3 통화공급(전년대비) (6월 -/E 1.1%/P 1.0%) (한국) 7월 소비자자기대지수 (7월 -/E -/P 107)
28	29	30	31	8/1
美 6월 미결주택매매	美 5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7월 소비자자기대지수 韓 6월 경상수지 · 상품수지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7월 ADP취업자변동 2분기 GDP 2분기 개인소비 7월 FOMC 통화정책회의 유 7월 경기대지수 韓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 6월 산업생산 6월 광공업생산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유 6월 실업률 7월 소비자물가지수	美 7월 비농업고용자수변동 7월 실업률 6월 개인소득 · 개인소비지수 7월 ISM제조업지수 韓 7월 소비자물가지수 7월 수출 · 수입 中 7월 제조업PMI 7월 HSBC 중국 제조업PMI
4	5	6	7	8
유 6월 생산자물가지수	美 7월 ISM 비제조업지수 6월 제조업수주 유 6월 소매판매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6월 무역수지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유 8월 통화정책회의	中 7월 무역수지 7월 수출 · 수입

자료) Bloomberg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해외주식 바로 알기

해외주식 매매 프로세스

프로세스	내용
해외주식 약정 등록	· 삼성증권 종합계좌에 해외주식 약정 등록
입금 / 환전	· 원화 입금의 경우 거래국가 통화로 환전 · 환전 가능시간: 09:00 ~ 16:00 (공휴일 불가) ※ 외화 입금시 환전 필요없음 (단, 외화 현금 지점 수납은 불가)
주문 (매수 / 매도)	· 온라인 매매 가능국가: 미국 · 홍콩 · 일본 · 유럽 및 기타국가: 오프라인 주문만 가능
환전 / 출금	· 원화 입금시 원화 출금, 외화 입금시 외화출금 원칙
양도세 신고	· 매도한 해의 다음년도 5월에 자진신고 (ex. 2013년 매도시 2014년 5월에 신고) · 250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 (주민세 포함) 양도소득세 부과

거래국가의 통화로 환전을 한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외하면 해외주식이 국내 주식과 다른 점은 없다. 삼성증권에서는 환전 가능시간(오전 09:00~오후 4:00)에 전화나 HT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환전 가능하며, 환전 이후 주문 역시 논스탑으로 가능하다.

해당국가의 통화로 직접 입금했을 경우에는 환전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외화입금의 경우 매매가 끝난 이후 출금 역시 외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삼성증권에서는 원화 입금시에는 원화 출금, 외화 입금시에는 외화 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주식전략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삼성본관빌딩 14층 주식전략팀 02-2020-8000